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 54장 거짓 평안

『산상설교』 하권 제54장, 인쇄 324~340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7:21~23

> ❓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이것만으로 정말 천국에 들어간다고 안심해도 될까?

###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이 본문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엄숙한 말씀으로 보고, 최후의 심판 날에 비추어 읽어야 한다고 말하며 시작한다. 그는 21절만 떼어 “신앙보다 행위”를 가르치는 구절로 읽는 해석을 물리친다. 21~23절을 함께 읽으면 이 본문의 목적은 신앙과 행위를 맞세우는 데 있지 않고, 자기기만이라는 무서운 위험을 드러내는 데 있다. 그는 사람이 잘못 의지하는 근거를 세 가지로 차례로 살핀다. 바른 신앙고백, 뜨거운 열정, 그리고 예언·축귀·기적 같은 행위다. 셋 다 참된 신자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버림받을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겉의 성과가 아니라 팔복이 그리는 속사람이다. 설교는 정죄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의에 주리고 목마르라는 초대로 끝난다.

## 📜 절별 정리

### 📜 1. 심판 날의 빛 아래서 읽는 가장 엄숙한 말씀

로이드 존스는 먼저 이 본문의 무게를 강조한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는 그를 편협하다고 정죄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으므로 가장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그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심판을 받을 날을 의식하며 읽는 것이다. 문맥상 주님은 7장 12절에서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마치셨고, 13절부터는 이를 적용하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권고 다음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15~20절)가 나왔는데, 이 단락은 그 경고를 이어 간다. 주님은 한 사람도 잘못 인도되지 않기를 바라셔서 경고를 거듭하신다.

1. 사람의 말이었다면 정죄했을 만큼 엄한 말씀이다
2. 믿는다면서 실제로는 무시해 온 본문이다
3. 최후 심판을 의식할 때만 바로 읽힌다
4. 7:12까지가 가르침, 7:13부터가 적용이다
5. 거짓 선지자 경고를 더 분명히 이어 간다

**마태복음 7:21**

명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가지는 못한다

>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22**

예시: 심판 날 많은 사람이 내세울 근거들

>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태복음 7:23**

선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12**

산상설교의 가르침이 여기서 마무리된다

**마태복음 7:15**

앞 문단의 주제인 거짓 선지자 경고

>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 📜 2. 21절을 떼어 읽지 말라 — 신앙 대 행위가 아니라 자기기만

로이드 존스는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먼저 세운다. 21절을 22~23절에서 떼어 내지 말고, 세 절을 하나의 명제와 그 설명으로 함께 읽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21절만 들고 와서 이렇게 말한다. “중요한 건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느냐다. 교리 논쟁은 그만두라.” 이 해석은 결국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로 이어진다. 그런데 22~23절에서 주님은 행위(예언, 축귀, 권능)에 대해서도 21절이 신앙고백에 대해 말한 것과 똑같이 말씀하신다. 행위도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목적은 신앙을 밀어내고 행위를 높이는 데 있지 않다. 거짓 선지자뿐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는 자기기만의 위험을 보여 주는 데 있다. 이를 긍정형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의와 성결 말고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 이신칭의에 이 사실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위험한 착각이며, 이것은 사람이 만든 율법주의가 아니라 주님 자신의 교훈이다.

1. 21~23절은 명제와 그 설명이다
2. 21절만 떼면 행위 구원론이 된다
3. 22~23절은 행위도 거짓일 수 있다고 한다
4. 본문의 목적은 자기기만에 대한 경고다
5. 성결 없는 칭의관은 위험한 착각이다

**마태복음 7:21**

오용되는 구절: 따로 떼면 행위 강조로 읽힌다

>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마태복음 7:22~23**

행위도 같은 판단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줘 오용을 막는다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히브리서 12:14**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 참된 의와 성결의 필수성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 📜 3. 첫째 거짓 근거: 바른 신앙고백

로이드 존스는 사람들이 기대는 첫째 거짓 증거가 뜻밖에도 정확한 신앙조항이라고 말한다. 주님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을 비판하지 않으신다. 이들은 주님의 본성과 인격에 대해 바른 교리를 가지고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주여”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정통 신앙은 절대 필수다. 그러나 정통에만 의지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야고보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떤다고 했다. 복음서의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소리쳐 고백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도 성경을 철학이나 추상적 진리처럼 받아들일 수 있고, 역사적 증거가 압도적이니 지적인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래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진리의 해설자가 되고 이단과 논쟁까지 하지만, 그 삶이 자기가 믿는다는 진리를 부정한다. 청교도들은 이 '거짓 평안' 문제에 여러 장, 여러 권을 할애했다. 로이드 존스는 그리스도 대신 자기 신앙을 신뢰하는 위험, 특히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 늘 믿고 말해 왔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를 경고한다.

3. 그러나 정통만 의지하면 멸망할 수 있다
4. 귀신도 바른 고백은 한다
5. 지적 동의는 중생과 다르다

**고린도전서 12:3**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 — 바른 고백은 필수다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야고보서 2:19**

귀신도 믿고 떤다 — 신앙조항만으로는 부족하다

>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누가복음 4:34**

귀신이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아본다

>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복음 8:28**

귀신이 예수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

>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의 정통에만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

로이드 존스는 “주여”가 아니라 “주여, 주여”로 반복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사람들은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실린 열정적인 사람들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마저 거짓일 수 있다고 하신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열정과 육적인 열심을 구별하는 일이다. 타고난 기질만으로도 사람은 뜨겁고 열심일 수 있다. 그는 설교자의 예를 든다. 원고의 배열과 표현에 스스로 만족하고, 설교하면서 자기 웅변에 흥분하고 감동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육적인 일일 수 있다. 공중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큰 소리로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며 쉽게 우는 감정적인 사람이 그 때문에 더 신령한 것은 아니다. 육은 거의 모든 것을 모방할 수 있다. 그 증거로 그는 로버트 머리 맥체인을 인용한다. 맥체인은 강단에 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울고 겸손해졌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일기에 이렇게 썼다. 그리스도를 위해 말할 기회를 놓쳤지만, 말했다면 자기 영광도 함께 구했을 것을 주님이 아시고 입을 막으셨다. 사람을 자기에게 끌지 않고 그리스도께만 끌 때까지는 누구도 참으로 열렬한 목사가 될 수 없다.

1. “주여, 주여” 반복은 감정과 열정을 보여 준다
2. 기질에서 나온 열심도 뜨거울 수 있다
3. 설교자도 자기 웅변에 감동할 수 있다
4. 큰 소리와 눈물이 영성의 증거는 아니다
5. 맥체인은 자기 영광을 섞는 위험을 알았다

> **마태복음 7:21**
> “주여 주여”의 반복이 열정을 드러낸다
>
>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 **마태복음 7:22**
> 심판 날에도 같은 열정으로 호소한다
>
>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육은 거의 모든 것을 모방할 수도 있습니다.”

### 📜 5. 셋째 거짓 근거(1): 주의 이름으로 한 예언과 설교

22절에서 주님은 신앙고백과 열정에 행위까지 더하신다. 이것으로 신앙과 행위를 맞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드러난다. 첫째 행위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영적 메시지를 전하는 일로 푼다. 신약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때 교회에는 성령으로 메시지를 받아 전하는 은사가 있었다 (고린도전서 12장). 바른 교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하고도 설교자 자신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로 발람이 있다. 그는 바른 메시지를 말했지만 삯꾼 선지자로 버림받았다. 사울에게도 선지자의 영이 임했지만 그는 천국 밖의 사람이었다. 바울은 남에게 전파한 뒤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 몸을 쳐 복종시킨다고 했다. 로이드 존스는 “몸을 친다”를 육체의 죄만이 아니라 강단에서도 앞으로 나서려는 혈육의 모든 열심을 다스리는 일로 읽는다. 고린도전서 13장도 예언과 모든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빌립보서 1장에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들이 전한 내용은 바르지만 그들 자신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심판 날에는 크게 칭송받던 설교자들이 천국 밖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수 있다.

1. 행위까지 포함되니 신앙·행위 대립은 어리석다
2. 예언은 성령이 주신 메시지 전달이다
3. 바른 설교를 하고도 버림받을 수 있다
4. 발람과 사울이 그 예다
5. 바울도 버림받을까 두려워 몸을 쳤다

> **베드로후서 2:15**
> 발람은 불의의 삯을 사랑한 삯꾼 선지자였다
>
>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유다서 1:11**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 대한 경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삯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사무엘상 10:10**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 예언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고린도전서 9:27**

남에게 전파한 뒤 자신이 버림받을 위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13:1~3**

예언과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1]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3]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1:15**

내용은 바르게, 동기는 투기로 전파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누가복음 16:15**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 📜 6. 셋째 거짓 근거(2): 귀신 쫓음과 많은 권능

다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일이다. 로이드 존스는 가룟 유다를 증거로 든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그들은 귀신도 항복했다고 기뻐하며 보고했는데, 이것은 유다에게도 해당되었다. 주님이 바알세불 비난에 답하실 때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하신 것도 유대인 축귀자들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사도행전의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같은 일을 하려 했다. 절정은 “많은 권능”, 곧 기적과 경이로운 일이다. 애굽의 술사들은 모세의 이적을 어느 정도 흉내 냈다. 주님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큰 표적과 기사로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려 할 것이라 하셨다. 바울도 불법한 자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거짓 기적을 행한다고 예언했다. 그래서 신유 같은 눈에 띄는 성과가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다. 로이드 존스는 당시 알려지기 시작한 사람의 타고난 능력도 언급한다. 인체의 전기, 수맥을 찾는 재능, 텔레파시와 초감각적 지각 같은 것들이다. 이런 능력은 어느 정도 성령의 은사를 흉내 낼 수 있다. 또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힘을 주시기도 한다. 이교도 고레스가 그 예다. 무엇보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람을 천국 밖에 붙잡아 둘 수만 있다면, 마귀는 그에게 “주여 주여”를 말하게 하고 바른 신앙조항을 그릇되게 붙들게 하며 표적을 행할 능력까지 줄 것이다.

1. 유다도 귀신을 쫓아냈을 것이다
2. 애굽 술사도 이적을 흉내 냈다
3. 거짓 그리스도도 큰 표적을 보인다
4. 타고난 능력이 은사를 흉내 낼 수 있다
5.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 **누가복음 10:17**

칠십 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마태복음 12:27**

유대인 축귀자들도 귀신을 쫓아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사도행전 19:14**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같은 일을 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출애굽기 7:11~12**

애굽 술사들이 모세의 이적을 흉내 냈다

11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마태복음 24:24**

거짓 그리스도들이 큰 표적과 기사로 미혹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8~10**

불법한 자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거짓 기적을 행한다

8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9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고린도후서 11:14**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 📜 7. 시금석: 겉의 성과가 아니라 팔복의 사람인가

로이드 존스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다고 본다.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이다. 성공에 들떠 돌아온 제자들에게 주님은 사실상 이렇게 물으신 셈이다. 너희가 정말 내게 속했느냐, 내가 가르친 의와 성결을 가졌느냐. 그러므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방법은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보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 아니라 팔복에 맞는지를 보아야 한다. 심령이 가난한가, 온유하고 겸손한가, 세상을 보며 신음하는가, 바울처럼 이 장막에서 짐 진 듯 탄식하는가. 이것이 팔복과 산상설교가 주는 시금석이다. 신약성경의 그리스도인은 잘못 볼 수 없는 분명한 유형의 사람이니, 그 표지를 적어 두고 묵상하며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그는 권한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곧 심판주이시니 속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죄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권한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1. 성과보다 이름이 하늘에 있음을 기뻐하라
2. 시험은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본다
3. 기준은 팔복의 성품이다
4.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심판주시다
5. 정죄감은 의를 구하는 길로 이끈다

**누가복음 10:20**

능력보다 하늘에 기록된 이름으로 기뻐하라는 요약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심령의 가난 — 시금석의 첫 항목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고린도후서 5:4**

이 장막에서 탄식하는 그리스도인의 표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6:15**

하나님은 마음을 아신다 — 외관이 아니라 실상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5: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다 — 마지막 초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보는 것입니다."

## ⚖️ 오해와 반론

## 📖 용어

**거짓 평안**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는 착각이다. 청교도들이 깊이

남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속여 영적 상태를 잘못 판단하는 것이다.

**정통 신앙**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에 대한 바른 교리를 믿는 것이다. 필수지만 그것만으로 구원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지적 동의**
진리를 머리로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마음이 새로 나는 것과는 다르다.

**중생**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을 받는 것이다.

**육(혈육)**
성령에서가 아니라 타고난 사람의 본성과 기질에서 나오는 것이다.

**성결**
하나님께 속해 실제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시금석**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기준이다. 이 장에서는 팔복이 그리는 성품을 말한다.

## • 점검 질문

## 💬 청년의 삶으로

## ✅ 이 장의 결론

- 21~23절은 신앙 대 행위의 대립이 아니라 자기기만에 대한 심판주의 경고다.
- 바른 고백, 뜨거운 열정, 놀라운 사역은 모두 필요하거나 좋은 것이지만, 셋 다 거짓일 수 있다.
-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것은 참된 의와 성결뿐이며, 그 시금석은 팔복의

- 이 진리 앞에서 찔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길은 절망이 아니라 의에 주리고 목마름이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